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2 >

梁 啓 超 著
沈 喆 俊 譯

第2章 僞書의 種類 및 僞作의 來歷

—年代錯誤의 原因을 덧붙여—

僞書의 種類는 許多하고 各自의 分類法 또한 一致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性質에 따라 漸次적으로 科學的인 方法은 아니지만 대충 말하면 열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를 順次的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部가 僞作인 境遇: 이러한 책은 子部에 많으니 「鬼谷子」나 「關尹子」 따위가 모두 그러하며, 經部에도 또한 적지 않으니 「尚書孔氏傳」·「子貢詩傳」·「孔子家語」가 모두 이것이다.

둘째, 一部가 僞作인 境遇: 이러한 책은 古典 가운데 너무나 많다. 거의 經·史·子·集의 每部에 모두 疑心스러운 곳이 있다. 「管子」·「莊子」 따위는 그中 一部分을 後人이 속임수로 더 써서 넣은 것이라고 先學들도 이미 많이 指摘하였다. 가장 진실한 책이라고 하는 「論語」 「左傳」 「史記」와 같은 것도 오히려 一部分은 그 原本이 아님을 꾀치 못하고 있으니 그밖의 것이야 일러 무엇하랴. 한 책 속에 몇 篇은 진실한 것이고 몇 篇은 僞作인 것도 있고 또 한 篇 속에 대부분은 진실한 것이지만 몇몇 句節이 僞作인 것도 있다.

셋째, 本來 없는 책을 僞作해 내는 境遇: 充倉子·子華子 따위와 같다. 充倉子는 漢書藝文志 및 隋書經籍志에는 모두 收錄되지 않았다. 史記莊周列傳에서 그가 지은 畏屢虛⁶⁾의 充桑子⁷⁾ 따위는 모두 빈말뿐이고 事實이 없다고 했으므로 後人이 이 말을 근거로 僞作을 만든 것이다. 子華子도 前世의 史書인 藝文志 및 諸家의 書目에 수록 되어 있지 않지만 「孔子家語」에 孔子가 程子를 만나 서로 車蓋를 기울이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莊子에도 子華子가 昭僊侯를 뵈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으므로 後人이 이로부터 附會해 낸 것이다.

넷째, 일적이 그 책은 있었으나 중간에 잃어져서 僞作한 境遇: 列子是 列禦寇를 짓고, 劉向이 校正한 것으로 모두 八篇이라고 옛날엔 말해 왔으며 漢書藝文志에

그 目次가 있었으나, 일적이 亡失되었다. 今本은 魏晉年間에 張湛이 僞作한바로 劉向·班固가 썼던 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竹書紀年은 晉時에 河南의 汲冢에서 나온 것으로 의당 戰國時代 사람이 지은 것이나 唐의 中葉에 이르러 없어졌다. 只今 通行本은 宋의 後人이 僞作한 것이다. 다만 王國維가 편제한 것은 眞本이니, 通行本이 僞作임을 證明할 수 있다.

다섯째, 內容은 모두 僞作이 아니나 書名이 僞作인 境遇: 左傳은 原名이 左氏春秋로서 呂氏春秋·晏子春秋와 같은 것으로 本來가 創作이었다. 지금의 書名은 春秋左氏傳으로서 公羊傳·穀梁傳같이 春秋經의 세가지 註解의 하나에 不過할 뿐이다. 原書는 本來 眞本이었으나 劉歆이 改竄한 뒤로는 本來의 面目과 크게 다르게 됐다. 이름이 고쳐지고 內容도 고쳐지고 體制도 또한 고쳐졌다. 그중 內容은 100分の 90은 신빙할만 하지만 書名이 僞作되었으므로 文意 또한 전혀 變했다.

여섯째, 內容은 모두 僞作이 아니나 書名·人名이 모두 僞作인 境遇: 管子 및 商君書는 모두 先秦時代의 作品으로서 後人이 僞作한 것과는 比較가 아니되며 春秋·戰國時代의 事實을 研究하는 資料로 使用될 수 있다. 다만 兩書는 모두 原名이 아니다. 「管子」는 無名氏의 抄書를 뚫은 것이며 商君書 역시 戰國時代의 法家의 著書를 뚫은 것으로 그 중에는 管仲商鞅의 死後의 事實도 꽤 많이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管仲商鞅이 지은바는 아니다.

일곱째, 內容 및 書名은 모두 僞作이 아니나 人名이 僞作인 境遇: 孫子 13篇은 戰國時代의 書籍으로서 漢人의 著는 아니다. 史記에서 孫武와 孫臏이 모두 책을 지었다 했으니 이 책은 아마도 孫臏의 作이거나 혹은 孫氏의 姓을 가진 다른 사람의 作이 아닌가 한다. 今本에서 孫武의 作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다. 또한 西京雜記는 晉의 葛洪의 著임이 分明하고, 東晉 때의 事情이 꽤 자상하다. 그런데 後人들은 劉歆의 作으로 看做하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일이다.

釋註 6) 畏屢에 대하여는 史記列傳 莊子에 「畏屢」·「畏累」·「畏壘」가 있으나 모두 같은 山名이다.

7) 充桑子는 人名으로서 庚桑楚이다. 莊子에 있는 「庚桑楚」篇은 이에서 따온 말이다.

여덟째, 古書를 剽竊하여 僞作하는 境遇: 郭象의 莊子注는 向季의 것을 표절했고, 王鴻緒의 明史稿는 萬斯同의 것을 표절했으니 이런 書賊의 표절행위야말로 가장 나쁜 일이다. 莊子注의 10中 8·9는 向秀의 것이며, 10中 1·2가 郭象의 作이다. 그러나 이것을 研究할 때에는 그 僞作部分을 가려내기 꼭 어렵다. 비록 이것이 僞作임을 알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明史稿는 현대의 커다란 事蹟이니 萬斯同은 二千年間의 大史家이며 그 著의 內容도 가장 貴重한 것이다. 그런데 王(鴻緒)은 明史館總裁로 있으면서 萬(斯同)의 原稿를 표절하고 마구 고쳐서는 橫雲山人의 著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殺人한 다음 屍體까지 없앤 것과 같은 行爲로서 後人들로 하여금 秋毫도 根據를 살필 수 없게 하였으니 그 所心은 더욱 陰險惡毒하다.

아홉째, 僞作을 또 僞作해 내는 境遇: 今文尙書는 本來 28篇뿐으로서 武帝 때의 것이다. 孔子의 집의 壁속에서 나왔다는 古文尙書는 16篇이 더 많다. 先學者들은 이미 僞作으로 의심했다. 그뒤 오래지 않아 이 책이 없어졌다가 東晉時代에 다시금 16篇이 나왔는데 또한 孔子집의 壁속에서 나왔다는 尙書와는 달랐으니 당연히 믿을만한 價値가 없다. 또한 孟子만 하더라도 漢書藝文志에 11篇(7篇은 內篇이고 4篇은 外篇) 수록되어 있는데 武帝時에 趙岐는 孟子注를 지으면서 外篇은 僞作으로 判定하였다. 이것은 그뒤 오래지 않아 없어지고 말았으나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明나라의 姚士粦이 또한 孟子의 外書 6篇을 假造하였는데 또한 武帝時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眞實로 蛇足을 붙인 것이다. 또한 「慎子」도 漢書藝文志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後에 없어졌는지 지금의 「百子全書」版은 곧 宋以後 사람이 여기저기서 찾아 몰아 이룬 것으로 그중 一部分는 僞作이고 一部는 古書가운데에서 編輯해 낸 것이다. 近者의 「四部叢刊」에 「足本慎子」가 있는데 이것은 謬荃蒸의 家藏本으로 말은 明人 慎懋賞의 傳來本이라지만 慎懋賞의 僞作임이 顯著하며 同姓人을 爲해 誇示한 것이다. 繆氏는 目錄學의 專攻者인데도 버젓이 이런 僞書를 믿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보고난후 참으로 失望이 크다.

열째, 僞書에 더 보탠 僞書: 이런 책은 讖緯의 것이 가장 많다. 예컨대 乾鑿度는 本來 戰國時代의 陰陽家 및 西漢時代의 方士의 作이다. 아마도 後人들이 이를 믿지 않을 까와 孔子가 羣經을 判定한 然後에 이를 만들어 낸 것처럼 거짓 宣傳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乾鑿度는 또한 漢時의 것이 아니라 後人들이 계속하여 增加하고 補綴하여 된 것인즉 어찌 僞作중의 僞作에 더 보탠 僞作이 아닌가? 만약 이 책을 研究하려면 左傳의 眞僞를 識

別하던 方法으로써 한번 걸러 내어야 할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中國의 僞書는 眞實로 지나치게 많다. 왜 이렇게 僞書가 많은가? 그 來歷은 어떤가? 私見으로는 大略아래에 列擧하는 네가지가 關係된다고 보겠다.

첫째, 옛을 좋아하기(好古)때문: 옛을 좋아한다는 것은 人類의 共通되는 性質이다. 中國人은 本來부터 儒敎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에 옛을 좋아하는 性品이 더욱 發達되었다. 孔子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叙述할뿐이지 創作하지는 아니하고 옛을 믿어 그대로 좋아한다……』(譯註: 論語, 述而篇)가 또한 많이 들은바에서 疑心나는 것을 버리고…… 많이 본바에서 危殆로운 것을 버리고……』(譯註: 論語, 爲政篇)라고 하였다. 孔子도 이터하고 그 門下生도 또한 이터하였으므로 「옛을 좋아하는 것」은 儒家의 特別한 精神으로 되었다. 儒家는 中國思想界에 있어 그 影響이 至極히 偉大했다. 儒學에서 옛을 좋아 했으므로 後人들은 尙書一部分의 古書를 보게되면 모두 대단히 珍重한 것으로 여겼다. 책은 옛것일수록 더욱 귀중한 것이 있으니 萬若 後人들이 만든 것이라면 도리혀 價値가 없어지게 됐다. 年代가 確實치 않은 많은 책들을 그 價値를 높이고자 年代를 그냥 古代로 올리지만 했으며 또한 後人의 所作이 分明한 많은 책들도 또한 往往 古人의 이름을 빌어 스스로 높이었던 것이다.

둘째, 秘密이 들어 있음: 前에 印刷術이 發明되지 않아서 책을 읽으려면 寫本에 전적으로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寫本은 大端히 힘든 일이었으며, 中國은 또한 國土가 넓은데다가 交通마저 不便하여 文物의 交流는 꼭 어려웠으며 또한 지금의 圖書館같이 公開閱覽할 수 있는 公共의 藏書機關마저 없었다. 그러므로 좋은 책을 얻게 되기만 하면 남에게 쉽사리 보여 주지 않아 書籍은 秘密을 가진 物件으로 變해 버렸다. 萬一 印刷術이 發明되어 交流가 쉬웠고 收藏도 便하여 書籍을 사람마다 볼 수 있었다면 僞書를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고 설사 僞作을 하였다 하더라도 쉽사리 發見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은 공개될수록 더욱 本來의 面目이 나오는 것이고 秘密이 될수록 더욱 僞作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書籍도 역시 例外는 아니다.

셋째, 散亂과 購入: 中國의 內亂은 참으로 많았는데 藏書人들은 實로 적었다. 모든 書籍의 殆半이 京城에 몰려 있었거나, 天府에 所藏되고 있었다. 古書의 收藏과 傳播는 皇帝의 힘에 依持하는 바가 컸었다. 좋은 책은 모두 天府에 있는 이상 한차례의 內亂을 겪을 때마다 燒却·散失되어 없어졌다. 그뒤 다시 蒐集·回復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隋의 牛弘의 請開獻

書表에는 書籍의 經歷을 말하고 있다.

『秦始皇이 天下를 다스리면서 처음으로 焚書令을 내렸으니 이것이 一厄이오, 王莽이 세운 漢(이때로서 前漢과 後漢이 갈림)의 末葉에 長安에 建康이 나서 宮室의 圖書가 모두 燒盡되었으니 이것이 二厄이오, (後漢末期에 董卓이 세도를 누릴 때) 獻帝가 移都하자 西京(洛陽)에 큰 난리가 나서 모두 燒失했으니 이것이 三厄이오, (西晉의 末期에) 劉淵과 石勒이 拔豪하여 서울은 다시 覆滅되고 나라의 章典이 모두 散失되었으니 이것이 四厄이오, 南北朝의 梁元帝 蕭繹이 江陵에 國都를 定하고 楊子江以南의 圖書를 모두 물았는데 周의 군대가 가까이(郢으로) 쳐 들어 오자 蕭繹이 外城에서 태워 버렸으니 이것이 五厄이오……』
隋以前에 圖書는 이미 五厄을 當하였다. 그런데 牛弘이 表를 올린 以後 다시 厄은 甚하였다. 隋煬帝는 都邑에서 內府의 藏書를 가져갔으나 煬帝가 죽자 책도 또한 散失되어 남음이 없었으니 이것을 一厄으로 칠수 있으며 安史의 亂에 長安이 부서져 唐代의 藏書가 홀렁 타버렸으니 이것을 一厄으로 칠수 있으며 黃巢의 亂으로 到處는 불바다가 되었으며 지나가는 곳마다 풀한포기 남아 있지 않아 天下의 文獻이 殆半 喪失되었으니 이것을 또한 一厄으로 칠수 있다. 以下 宋·元·明부터 淸에 이르기까지 各時代마다 모두 內亂이 있었고 內亂을 거칠 때마다 天府의 藏書는 반드시 한번은 크게 遭難을 당했으니 많은 노력을 浪費하여 蒐集된 抄本은 깨끗히 掃蕩되었다.

네번의 內亂에서 책이 散亡된 後 稽古·古文의 君主或은 宰相들은 이를 補充하는 方法을 講究하였으니 高價로 個人의 藏書를 사드려 天府를 채웠다. 歷史를 펼쳐 대략 훑어보면 이러한 事實은 적지 않다. 漢武帝가 開獄의 길을 넓히고 寫書官을 두어 한편으로는 사람을 찾아 搜集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찾아 抄寫했다. 漢武帝때는 講者 陳農으로 하여금 天下에서 逸書를 널리 求하도록 하였다. 隋의 皇時에는 宰相 牛弘의 의견으로 사람을 풀어 異本을 찾아 求하도록 하는데 한 책에 비단 한匹을 賞으로 주었다. 唐의 貞觀중 魏徵 및 俞孤德榮은 報酬를 厚히 주어 亡逸圖書를 購入하도록 청원했고 肅宗과 代宗은 安祿山 思明亂後 모두 계속하여 典籍을 購入하였다. 이와같은 것은 일일이 例擧할 수 없다. 큰 난리뒤에 書籍의 亡佚은 크고 政府는 補充하기에 급했으므로 嚴格할 수 없었고 重賞을 주면서 寬厚하게 取錄함으로써 圖書를 蒐集하는 門戶를 넓혔다. 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僞作의 機會를 주었다. 어떤것은 表面만 살짝 바뀌 놓았고, 어떤것은 이리저리 찢어서 새로 봉아 놓은 것이 있고, 어떤것은 僞造하여 重複되게 베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投機事業을

하므로써 막대한 利를 圖謀했다. 이런 까닭으로 僞書가 거듭 거듭 쏟아져 나왔다. 한편 散亡된 것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眞本은 失傳됐고, 한편으로는 性急히 購入했으므로 僞作이 많이 나왔던 것이다. 네개의 原因 가운데 이 원인이 가장 重하다 할 것이다.

셋째, 秘本이 偶然히 발견되는 것에 附會하는 境遇: 古代의 書籍으로 중간에 散佚된 것이 가끔 偶然하게 發見되는 일이 있다. 晋나라 太康 三年(西紀 282년에 河南省 汲郡이란 地方에서 어떤 자가 古墳을 盜掘하다가 많은 竹簡을 얻었다. 後人の 考證을 거쳐서 이 古墳은 魏襄王(從前에는 安釐王이라 여겼음)의 葬地라고 알게 됐다. 竹簡은 戰國時代의 遺物이었다. 魏襄王이 死亡했을 때 책(竹簡)으로써 殉葬한 것이다. 竹書紀年·穆天子傳은 모두 그중에서 얻었다. 古墳에서 書籍을 發見한다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後代의 수많은 사람들이 僞作하고 여기에 附會했다. 그래서 歷史책에는 某處의 古屋 某處의 古墳에서 古書를 發見했다는 것이 많이 記錄되어 있다. 아마 發見은 事實이겠으나 책은 가짜일지도 모르고, 혹은 發掘도 사실이 아니고 책 또한 가짜일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僞書가 流傳되기 날이 갈수록 甚했다. 또한 淸의 光緒 末年에 河南省 殷墟에서 많은 甲骨이 發見되었고 그위에 새겨진 文字는 모두 孔子以前의 것으로 孔子도 일찌기 보지 못한 것이니 이런 것은 本來 아주 貴한 寶物이다. 그러나 發見이 있은지 數十年 사이에 北平의 琉璃廠에는 이미 가짜 甲骨이 참으로 많다. 從前에는 貴하지 않다가 現在는 대단히 貴하게 되어서 작은 것은 몇元, 큰 것은 몇十元이 되기 때문에 自然히 사람들은 僞造로써 謀利하는 것이다. 書契·典籍은 亡佚된 뒤에 다시금 나올 可能性이 있어 後人들이 僞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僞書가 많아진 것은 이것 또한 하나의 原因이 됐다. 그러나 셋째의 原因처럼 重要하지 않을 따름이다.

앞에서는 僞書의 種類를 책의 性質로써 보아 대개 十種으로 分類한다고 記述했다. 그러나 만약 僞作의 動機로써 分類한다면 따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分類法은 앞서 말한 分類法에 比해서 좀 더 重要的한 것이다.

1. 故意的인 僞作

故意的인 僞作은 그 動機를 다음 여섯 項目으로 歸納할 수 있다.

첫째, 옛것에 假託하기 위한 경우: 이 動機는 比較的 가장 純潔한 것으로 우리들은 그래도 상당히 理解해 줄 수 있다. 왜 옛것에 假託하려고 하는가? 中國

人들은 骨董品을 즐기고 옛것을 貴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은 비록 참으로 좋은 意見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들이 그를 믿어 주지 않을까봐 그저 옛 사람을 끌어 내어 자가의 意見을 重히 하는 것이다. 要컨대 옛 사람이 이와같이 主張했다고 말해야 비로소 一般人的 믿음을 넓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作者의 心理는 名譽를 얻기 위한 것이나 利益을 얻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自己의 見解를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옛 사람의 名聲에 依持하여 자가의 說을 推進하려는 것이다. 手段은 비록 그릇된 일이지는 하지만 그 動機는 아직도 清廉潔白하다. 이러한 現象은 春秋戰國時代에 가장 많았다. 바로 史記 五帝本紀贊에 『百家들은 黃帝를 말하고 있으나 그 文章은 典雅하지 못하다』라고 했으니, 春秋戰國時代의 사람들은 모두 文化가 펴 오려 뻤다는 說을 篤信하며 黃帝時代에 各種의 學術思想이 이미 상당히 發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孟子 滕文公上에 『神農의 學說을 假託한 許行(譯者: 許는 姓, 行은 名, 神農의 가르친 바라 하여 自給自足을 主義로 삼은 者)이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許行은 無政府主義者로서 賈斯의 唯物論과 가까운 냄새가 풍긴다. 그는 理想이 유달라서 모두들 그의 思想을 믿지 않을까와 神農을 依託하여 자가의 說을 重히 하는 것이다. 神農은 가버린지 아득하므로 當時의 社會가 어땠을까는 알 道理가 없다. 또한 후시 許行의 理想속에 있는 神農時代란 眞實로 스스로 받을 갈아 먹고 스스로 베를 짜서 입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模倣했을지도 모른다. 특별히 諸子百家들만 옛것에 假託했을 뿐 아니라 孔子나 孟子도 또한 옛것에 假託했다.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위대하셨도다! 堯님의 임금됨이여!』 또한 말씀 하시기를 『偉大하셨도다 舜님과 禹님께서 天下를 가지심이여!』라고 하였다. 孟子는 더욱히 甚하였다. 滕文公上에 『孟子는 性善⁹⁾을 말하고, 또 반드시 堯·舜(의 言行)으로써 引證했다라고 하였다. 儒家가 이와 같았고, 墨家도 또한 그러했다. 尚賢中에서 『堯·舜·禹·湯·文·武王이 天下에 王道를 쫓을 때, 諸侯를 바로 잡는 데는 또한 이것이 그 방법이었다 했고, 더욱이 禹님을 崇拜하였으니, 莊子 天子篇을 보면 『墨子是 자가의 道가 말미 암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옛날 禹님이 洪水를 막고…… 親히 삼태기와 보습을 操作하여… 禹님은 大聖인데도 天下를 위하여 身體를 勞動했음이 이와 같다』 하였다.

대저 春秋戰國의 開宗大師는 자가의 學說을 重히 하기 위하여 古人을 끼고 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韓非子의 顯學篇에서는 그들을 批評해 말하기를 『孔子와 墨子は 모두 堯·舜을 말하지만, 그 取捨하는 바는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모두 스스로 자가가 眞正한 堯·舜의 跡이라고 한다. 堯·舜이 再生하지 않으면 누가 儒家와 墨家의 齟齬를 決定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痛快하기 그지없다. 堯舜이 죽었으니 살아 있는 입으로 對證할 수 없어서다. 어찌 그것이 眞인지 假인지를 알겠는가. 孟子가 「神農⁹⁾의 學說을 假託한 許行이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던 許行도 「堯舜의 學說을 假託한 孟軻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儒家가 「大禹님의 學說을 假託한 墨翟이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墨家도 또한 「黃帝의 學說을 假託한 老聃이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各學派마다 一人의 古代의 著名人物을 끌어서 그 學說을 重히 여기고 있다. 動機는 本來 甚히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생이 한 하나의 主張에 대해서 學生은 더욱 심하게 이를 鼓吹하였으니, 이른바 『아버가 殺人으로 보복을 하면 그 아들도 반드시 疋掌을 行한다』한 流弊는 곧 이루 말할 것 없다.

即 許行의 並耕說은 本來 그가 提起한 唯物主義이고 無政府主義인데 억지로 神農時代가 이와 같았다고 말한 것이다. 뒤에 와서는 점점 더 事實인 것처럼 말하여 假짜를 진짜로 變貌시켰다. 漢書藝文志에는 「神農」二十篇, 「神農教田土耕種」十四卷, 「神農黃帝食禁」七卷이 있는바, 이는 全部 附會한 것이다. 가장 有名한 「神農本草」란 책은, 傳해지는 말로는 神農이 百草를 몸소 맛보아 그 달고 쓴을 가려내어 지어 낸 책이라고 하였지만, 事實은 이 책과 神農과는 秋毫도 關係없는 일이다. 이 책은 漢末以後에 漸次 자료를 끌어 모아 梁의 陶弘集에 이르러 비로소 쓰여진 것이다. 또한 莊子는 著書함에 있어 萬言이 十中九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自己의 主張을 發表하려면 小說의 體裁를 利用하는 것이 가장 容易하기 때문이다. 莊子의 天地篇에는 『黃帝는 赤水(譯者: 舊名, 赤虺河, 雲南省 鎮雄縣東北)으로부터 흘러 내려와 東南쪽으로 貴州에 흐른물로 물의 色이 붉으므로 赤水)의 북쪽에서 놀았으며, 崑崙의 언덕에 올라 가서 南쪽을 바라보고 돌아 오던 길에 그 玄珠(譯註: 즉 道)를 잃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래 莊子의 理想으로서 黃帝의 이름을 빌어 文章을 修飾한 것이다. 이는 마치 曹雪芹이

釋註 8) 사람의 本性은 本來부터 착하다고 말하는 說에 孟子가 儒敎의 根本義로서 道理시키는 바, 前篇에 「사람이 참을 수 없는 章」에서도 보이고 또한 後章에 詳說하고 있다(孟子滕文公章句上)

9) 炎帝神農氏의 일. 神農氏는 비로소 百姓에 農事를 가르친 者, 神農의 말을 한 것은. 스스로 耕作을 하고 勞役을 한 것은 主義라고 하는 一種의 學派로서 許行은 그 學說을 받드는 者이다(滕文公章句上)

「紅黛夢」을 지을때 寶玉과 黛玉의 입술을 빌어 그의 不平스러운 기분을 토로한 것과 같다. 그러나 後人들은 莊周가 黃帝에게서 했으므로 아무런 다른 근거 없이 許多한 黃帝의 事實과 黃帝가 지은 著書를 附合해 내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漢書藝文志에 所載된 許多한 僞書는 殆半이 古人의 說을 끌어다가 자가의 學說을 重히 하려는 動機에서 나온 것이며 著書가 이루어진 年代는 또한 大部分이 戰國時代이다. 戰國末葉에 社會變動이 極甚하였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寓言을 빌어 發表하고 어떤 사람들은 神話를 빌어 發表하고 있는데 開宗大師는 모두 古人을 끌어다가 護身符로 삼았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傾聽하게 한 것이다. 그들의 學生들은 더욱 심해져서 대대적으로 僞書를 만들어 냈다. 學術이 隆盛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고 僞書가 充滿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秦始皇이 焚書하기 以前 즉 春秋·戰國시대의 僞書는 대개 모두 이런 動機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둘째, 賞을 받기 위한 경우: 方今, 戰亂이 끝난 뒤 마다 高價를 주고 책을 구하니 僞書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一般的인 것은 漢武帝劉徹·唐太宗李世民처럼 옛날의 學問을 崇尚하는 皇帝가 懸賞을 걸고 蒐集할때 許多한 싱거운 사람들이 專門的으로 投機事業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散失되었다가 다시 蒐集할 경우마다 僞書는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몇차례의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 즉, 漢나라 景帝의 아들 河間獻王은 옛것을 즐겨 修學하며 事物의 真相을 캐내려던(實事求是)사람인바, 그는 親王의 힘으로써 賢士를 優待하고 典籍을 求하여 아주 많은 書籍을 얻었다. 그는 특히 秦漢以前의 古文字를 즐겨서 搜集에 全力을 다 하였으므로 古文의 各經은 모두 河間獻王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漢나라의 經師들이 今文派와 古文派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일도 그 來源은 여기에 있다. 그가 얻은 遺書는 진짜도 참으로 많았으나 가짜도 또한 적지 않았다. 僞書一部를 만들어 내면 돈을 벌 수 있었고, 또한 벼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實利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이를 좇았으며 僞書는 끝없이 汎濫하였다.

漢代에는 僞古文의 經書를 除外한 이외에 또한 이른바 緯書가 있다. 앞서 말한바 있는 乾鑿度는 곧 緯書의 하나다. 緯書가 古代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특히 알 수 없다. 戰國末葉에 陰陽家가 五行神仙說을 造作해 냈으니 이것은 緯書의 큰 根源이랄 수 있을 것이다. 西洋中世以後에 이르러서는 作品이 至極히 많았으며 流傳도 또한 많았다. 더욱 宣帝朝는 특히 많

았었다. 宣帝는 武帝의 曾孫이며 戾太子의 孫子였다. 戾太子가 讒訴를 입어 죽게 되자 宣帝는 獄에서부터 民間으로 떠돌아 다니게 됐다. 그는 젊었을 때에 恒常 燒餅歌(떡굽는 노래) 같은 따위의 寓言을 들어 왔는데 偶然히도 몇차례나 公認롭게 合致되자 그는 깊이 믿었다. (譯者: 深信不信은 文意上 深信不疑의 誤植인 듯함) 後에 그는 皇帝가 되자 극력 이를 獎勵하였다. 皇帝의 權威로서 臨하였으니 全國人은 그 기풍은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그때 「燒餅歌式」의 著作—— 즉 讖諱——이 많이 流行되었다. 西漢과 東漢에 이러한 것들이 기껏 發達했다.

漢나라 成帝때에는 特別한 事件이 있었다. 즉 成帝는 尙書를 특히 좋아 하였는데, 尙書百篇은 秦나라에서 焚書한 以後 十중七은 잃어버지고 다만 28篇만이 남았다. 成帝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하였으므로 完帙을 求하려고 別법을 다 썼다. 이때 張霸가 나와서 投機的인 事業으로 「百兩尙書」(102篇의 尙書)一部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足本에 比하여 두篇이 더한데 이를 春秋以前의 舊書라 하였다. 이 冊을 올리자 成帝는 대단히 기뻐하며 즉각 그에게 博士의 官職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國立大學 教授와 같은 地位이다. 後에 仔細히 研究해서 原來 있던 28篇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짜낸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이라고 主張하였으나 成帝는 그의 才幹을 甚히 애졌고 또한 가짜를 만들기도 容易하지 않음을 가련히 여겨 다만 博士의 職位만 갈아 버리고 목숨은 용서 해 줬다.

東漢時代에 와서는 다만 僞書가 充滿했을 뿐 아니라 燒餅歌 또한 대단히 流行되었다. 後漢의 光武帝는 一代의 中興의 王으로서 偉大한 才能과 計劃을 가졌으며 中國史上 第一의 皇帝로서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지나친 迷信家였다. 光武帝의 이름은 劉秀였는데 王莽 때에 民間에는 「劉秀가 天子된다」란 謠言이 있다. 그때 劉歆은 國師로 있었는데 流行하는 歌謠에 마치고저 劉秀로 고쳤다. 光武帝는 당시 바로 南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그에게 알려 줬다. 『國師는 天子가 되려 한다』고. 이 말을 듣고 光武帝는 호미를 내 던지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라고 答하였다. 後에 그는 과연 한 匹夫로써 義兵을 일으켜 王莽을 打倒하고 스스로 皇帝가 되었다. 그는 燒餅歌가 대단히 靈驗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를 완전히 믿었다. 一般人民들은 입금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려 했으므로 이에 억지로 造作하여 고의로 隱語를 지어 世上을 속였다. 비록 直接 僞書는 假作한 것은 아닐지라도 僞書의 假作에는 큰 影響이 있었다.

清代에 내려와서도 또한 特記할 事件이 있었다. 文帝는 古書를 심히 좋아 했고 그중 특히 易經을 즐겼다.

當時에 大學者 劉炫이 있어 學問의 權威가 떨쳤으며 北魏·北周의 末葉에 北方의 大經師가 되었고 또한 1·20年間 大學教授를 지냈다. 文帝의 嗜好를 迎合하였기 때문에 連山·歸藏의 二部의 易經을 만들었다. 그는 連山은 夏朝의 易經이고 歸藏은 商朝의 易經이며 周易은 周朝의 易經이라고 말했다. 中國人들이 어릴때 배우는 三字經에 『連山이고 歸藏이 있으며 周易이 있어 세가지 易이 자세하다』는 句節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連山·歸藏은 周禮중에 提起된 것으로 周禮를 假造한 사람이 멋대로 만든 것이며 本來는 이 두 部가 없었다. 劉炫은 周易을 보고 連山·歸藏을 着想한 것이다. 책은 처음 王帝에게 받치었을 때에 文帝는 크게 기뻐했으나 後에 알아보니 가짜여서 大逆不道로 여기고 곧 劉炫을 죽였다. 一代의 大學者가 假書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을 잘리었다는 것은 너무 價値없는 것이다. 그러나 獎勵가 過分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分明히 假書를 만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비단 劉炫만 닦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勝利를 다투는 경우: 中國人들은 옛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서 옛것이던 옛것일수록 더욱 좋아했고 오늘날의 見解는 如何를 莫論하고 옛사람들 보다 高明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많은 學術上의 論爭은 쓸데없이 言辯만 늘어 놓아야 他人을 이겨내지 못하므로 假書를 만든다던지 或은 古書를 改竄하는 것으로서 武器로 삼았다. 이러한 動機는 「옛것에 假託하는 경우」와는 같지 않다. 「옛것에 假託하는 경우」는 좋은 것이니, 자기의 主張을 發表하기 爲하여 古人을 끌어 들여 자가의 學說을 重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古人을 誣陷하지도 않았고 또한 열사사람들을 誣毀하지도 않았다. 「勝利를 다투는 경우」는 좋지 못한 것이니 다만 目的을 達成할 수만 있다면 古人이건 今人이건 모두 利用하고 弑殺하니 너무 刻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勝利를 다투기 위하여 가짜를 만든 것은 西漢末 劉歆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經學上 古文과 今문에 대한 論爭이 있었다. 劉歆의 父 劉向은 大經師였고 劉歆자신도 學問에 또한 대단히 淵博하였다. 漢書藝文志는 바로 그의 原稿에 依據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學問에 있어 우리는 그를 尊敬해야 할 것이나 人格에 있어서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의 姓은 漢나라의 國姓인 劉氏인데도 位을 篡奪한 王莽을 위하여 그 國師가 되었고, 또 劉秀로 改名하여 民謠「劉秀作天子」前書에 應하려 했으니 不忠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父親은 今文家로서 詩는 魯詩, 春秋는 穀梁春秋를 主로 했는데 그 自身은 古文을 崇尚하여 詩는 毛詩, 春秋는 左氏春秋를 主로 했으니 不孝라고 말할 수 있다. 從前에는 다

만 左氏春秋만 있었으나 後에 春秋左氏傳이 있게 됐다. 劉歆이 傳을 引用하여 經을 고치고 그 위에 많은 말을 덧붙여서 左傳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는 公羊·穀梁은 모두 늦게 나왔으며 여러 傳說로부터 생겨난 것을 誤謬와 漏落이 百出한 것이라 말하고, 오직 左丘明은 親히 孔子를 봤고 또 그 好惡가 聖人과 더불어 같았다고 말했다. 論語 公冶長에 일찍이 『左丘明이 이를 羞恥스러워 했다더니 丘(孔子)도 이를 羞恥스러워 한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당연히 가장 신빙할만하다. 그는 今文家와 專門의 對話했으니 春秋에 있어서는 左氏傳으로써 公羊·穀梁을 打倒하였고, 또 詩經에 있어서는 毛詩로써 齊·魯·韓의 三家를 打倒하였고, 禮에 있어서는 周禮로써 儀禮를 打倒하였다. 또 言辯만 依持하여서는 競爭을 이겨내지 못할까 염려해서 古書를 全部 或은 一部를 改作하였다. 즉 周禮의 경우는 全部가 劉歆의 偽作이고, 左傳의 一部分은 劉歆이 編하였으며, 그 나머지의 各經도 고친 것이 許多했다.

漢나라 以後 魏晉間에 이르기까지 王肅이 나와서 劉歆의 舊知慧를 배워서 當時의 大經師인 鄭康成을 打倒하려면 假書를 假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假書가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 지게 됐다. 僞古文尚書의 孔安國傳은 傳하는 말에 依하면 그가 改竄한 것이라 한다. 主謀者의 이름이 비록 完全히 確定된 것은 아니지만 十중九는 믿을 수 있다. 孔子家語와 孔叢子는 거의 完全히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 問題도 없다. 이밖에 歷代의 古書를 假作하여 相對方을 打倒하려 한 사람은 아직도 許多하다. 여기에서는 劉歆·王肅 두 사람의 경우만을 들어 그 代表를 삼았다.

儒家도 이와 같고 道教 또한 그러하다. 道教와 道家는 같지 아니하다. 道家는 一種의 哲學思想으로 老聃·莊周의 一派와 같은 것이다. 道教는 정겨운 宗教이다. 最初에는 黃巾賊인 張角이 符籙과 呪術로써 人心을 煽動시킴으로서 만미암은 것인데 後에 더욱 激甚하게 되어 江西省 龍虎山 張天師의 一派를 이루었다. 道教는 東漢末에 일어나 二千年來 社會上의 커다란 勢力을 扶植하다가 바로 民國15年(1926)에 中國 國民黨軍이 江西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張天師를 追放했다. 道教는 처음 일어났을 때 符籙과 呪術로써 사람들을 속였으며 그 속에는 별달리 奧妙한 의의도 없었다. 그뒤, 愚民들이 信仰하는 者가 많아지자 野心이 생겨서 一大宗派를 이룰려고 했다. 마침 佛敎가 印度로부터 輸入되자 道教는 이와 더불어 競爭하여 許多한 奇怪한 책을 만들어 낸 것이다. 現在의 「道藏」가운데에는 黃帝의 著作이 거의 百種이나 있고 老聃·莊周의 것 또한

각각 數十種이 있는데 이와 같은 따위에는 僞書가 퍼 혼다. 그 目的은 佛敎 또는 儒家와 競爭하려는 데 있었다. 年代가 오래 될수록 書目은 더욱 붙어, 現在에 와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數가 됐다.

佛敎自體에도 僞書가 또한 적지 않다. 佛經은 外國에서 輸入된 것으로, 말의 뜻이 깊고 어려워 理解키 어렵지 않다. 書籍을 翻譯하는 것은 자기가 새로 쓰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經驗했을 것이다. 六朝·隋唐間에 佛敎가 盛行하자 참된 佛典이 正確히 翻譯되었으나 一般人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投機를 일삼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서 끌어 모아 佛家의 말을 써서 周秦諸子의 에기를 섞어 가지고 만들어 냈다. 쉽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즐겨서 讀誦했으나 佛經의 原義는 아니었다. 佛徒들은 自己의 勢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또 大師들과 이름을 다투기 위해 의욕으로 普通 사람들의 心理에 迎合하여 거리낌없이 僞書를 假作한 일도 往往있었다. 楞嚴經과 같은 것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모두 佛敎의 보배로운 入門書로서 여기고 있다. 그것은 그 속의 思想이 中國思想과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楞嚴經은 信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의 싱거운 作品들로서 楞嚴經보다 못한 것들이 아직도 相當히 많은 것이다.

넷째, 이름을 빛내기 위한 경우: 이러한 경우의 動機는 賞을 타려는 경우에 비해서 좀 나으나 역시 卑劣할 것이다. 다만 外來的인 虛榮을 위한 것이며 自己의 主張은 아닌 것이다. 列子를 假作한 張湛은 當時 學者들의 老莊에 대한 註解書가 많은 것을 보고 새로운 面을 開拓하지 않는 限, 이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列禦寇란 사람은 莊子中에서도 言及되고 있으며 또한 漢書藝文志에도 列子八篇이 있다는 項目이 있으므로 이에 前說을 모으고 여기에 自己의 意見을 붙여 列子 한 책을 스스로 編輯하고 스스로 註釋을 붙여 만들었다. 果然 이로 因하여 오래 이름을 떨쳤다. 僞書로 認定되기 以前에는 그의 名聲은 王弼·向秀·何晏과 어깨를 나눌 수 있었다. 이는 偏鋒(非正常的인 方法으로)을 달려 이름을 얻었으니 願대로 報償을 받은 것이다.

또한 楊慎은 平生 자기의 학문이 淵博하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 했으며 언제나 他人이 보지 못한 책을 보려고 했다. 本來 한 사람의 學問을 論함에는 自己의 獨創의인 見解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學識의 幅이 넓고 좁고 하는 것을 묻지 않는 법인데 다만 楊慎만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博學인 것을 貴하게 삼았다. 太平御覽은 中國의 一大 類書로서 修文御覽에 根據하여 나왔으나 修文御覽은 일찍이 散佚되었다. 그런데 楊慎은 그가 본일이 있다고 억지로 固執했

다. 뒷 사람들은 그의 手法이 깨끗지 못함을 諷으로 그가 말하거나 쓴데 비하여는 완전히는 믿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고 그의 말에 根據하여 修文御覽이 明代까지 남아 있었다고 확신한다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또 豐坊같은 사람은 明代의 大 藏書家로서 范氏의 天一閣에 所藏되고 있는 藏書의 殆半이 豐氏에게서 얻어 온 것이다. 豐氏는 여러 代에 걸친 藏書家로서 사들인 책이 대단히 많으며 第三代인 坊은 더욱 책을 좋아 했다. 그의 집에 所藏된 抄本은 참으로 많아 스스로 뽑내기에 足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洽足치 못하여 구태여 가져를 沒불일려 했다. 「子貢易傳」「子夏詩傳」「晉史乘」「楚辭玩」 따위는 質로 可笑로운 것들이다. 豐坊은 책을 좋아 했고 또 名聲을 좋아 했다. 그가 僞造를 만들기를 즐기는 것은 아마 精神病의 作用이 있는 것 같다. 晩年에 오는 眞作 秘本은 그의 欲望을 채우기에 足하지 못하고 가져 책을 또 미처 만들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精神病으로 죽었다.

다섯째, 善한 者를 誣陷하기 위한 경우: 僞書를 만들어서 他人을 誣陷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涑水記聞은 後人들이 司馬光의 이름을 팔아서 王安石을 痛烈하게 꾸짖었고 幸存錄은 後人이 夏允彝의 이름을 빌어서 東林黨을 비방한 것인데, 其實은 이러한 책들이 本來는 없었던 것이거나 或 있다 하더라도 중상하는 말은 없는 것이며, 이는 後人들이 假造했거나 或은 다른 말을 混入한 것들이다. 또한 某人을 害치려고 僞物의 贗品을 만들어 그 證據로 삼은 것도 있다. 예컨대 宋나라 魏泰는 梅聖俞를 害치려고 「碧雲觀」란 책을 짓고, 梅聖俞의 撰이라고 이름을 假託하였다. 碧雲觀란 가마를 가진 말은 品格은 비록 貴하지만 그 가마의 醜惡相을 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一卷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모두 當時 朝廷의 선비들을 날날이 비방하는 말로써 이를 빙자하여 公憤을 야기시 킬려 했던 것이나 不幸이도 뒤에 가서 사람들에게 發覺되었다.

어떤 사람은 많은 心血을 소모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으나 自己의 이름으로 내자니 또한 不便하고 拋棄하자니 또한 아까워서 하나의 假名을 만들어 印刷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 즉, 香奩集과 같은 것은 本來 和凝이 지은 책으로 文學界에서도 價値가 대단히 높지만 다만 그중에 戀愛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和凝은 宰相이 된 後에 自己의 自身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韓偓이 지은 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實을 和凝은 當時 「曲子相公」의 이름이 있었으며, 香奩集은 그 자신이 지은 豔體詩라고 말해도 안될 것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태여 이를 避하려

하였으니 그 動機는 비록 순전히 善한 者를 誣陷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程度는 이에 가까우며, 끝내는 正當치 않은 것이다.

여섯째, 他人의 美를 奪取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은 學界에 상당히 많았다. 例컨대 앞서 말한 郭象의 莊子註같은 것은 向秀의 것을 표절한 것이고, 王鴻緒의 明史稿는 萬斯同의 것을 표절한 것이다. 莊子註도 그나마 꽤 많은 편으로 큰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明史稿는 아주 엉망으로 고쳐 놓았으니 點金成鐵(譯者: 黃金을 만져서 무쇠로 만들었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 책을 읽을 때 恒常 原本을 못보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또한 谷應泰의 明史記事本末은 編制가 잘 짜여 있고 說明의 詳略이 適當한 것으로 佳作이라 推薦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邵念魯의 思復堂文集의 遺民傳에 依據하면 山陰 張岱가 지은 책인데 谷應泰가 五百金으로 이를 購入하였다고 한다. 果然 그렇다면 우리들은 谷氏에 對하여 그는 他人의 美를 奪取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固意的으로 만든 僞書는 첫째의 動機(즉, 託古)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다섯가지의 動機는 모두 나쁜 것이다.

2. 本意아닌 作偽

大部分의 책은 作者는 속이려 하지 않았으나 後人들이 함부로 推測하여 適當히 가려 놓은 바람에 名稱과 內容이 混亂케 되었다. 古書의 眞僞를 『辨別하려는』以上, 이러한 著作을 例外로 할 수는 없다.

7. 題目이 그릇되었거나 함부로 된 것.

이러한 作品은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篇中에 某人名이 있기 때문에 題目이 그릇된 것: 素問 한 책만 하더라도 일러야 戰國末葉의 作品이고, 좀 늦추어 보면 西漢末葉에 비로소 나왔으며, 中國의 最古의 醫書이다. 그 중에는 비록 問題되어야 할 곳이 많으나 亦是 貴한 것임에 틀림없다. 古代의 醫學知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에 힘있는 바가 許多하다. 著者의 姓名은 傳해 지지 않고 있으나, 只今은 「黃帝의 素問」 또는 「黃帝의 內經」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靈樞」란 책도 또한 著者가 傳해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只今은 「靈樞鍼經」 또는 「黃帝의 鍼經」이라고 한다. 作者가 本來 僞作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素問의 첫머리에 『黃帝가 岐伯에게 묻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作者가 黃帝와 岐伯과의 問題되는 말을 빌려 自己의 醫學上의 見解를 펼치려던 것이었으나 이것을 後人들은 살피지 못했으므로 이따로써 答박 黃帝의 著作이라고 誤解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名醫를 稱贊하여 「醫術이 岐伯·黃帝처럼

精通하다.」(術精岐黃)라고 하게 된 것이다.

또한 「周髀算經」이란 책은 의당히 漢人의 作品으로서 中國에서의 最高의 數學書이며 그 價値도 至極히 높히 評價되고 있다. 著者의 姓名은 역시 傳해지지 않고 있다. 後人들은 卷首에 『周公이 商高에 묻기를……』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침내 周公의 著作이라고 誤解한 것이다. 實은 「周」는 「圓」을 「髀」는 「股」(譯註: 二等邊이 아닌 直角三角形에 있어 直角을 이루는 二邊가운데 긴 邊을 말함)를 말하는 것은 只今의 「幾何」「三角」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周公·商高라고 일컫는 것은 作者가 古人의 이름을 假託하여 自己의 數學上의 見解를 펼친 것에 不遇한 것이다. 처음부터 意識的으로 僞作한 것은 아니다. 後人들은 이를 살피지 못하고 억지로 周公의 著作으로 삼은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의 圓, 하나의 股를 뜻하는 「周」「髀」는 다만 周公의 다리를 만들어 버렸다. 許多한 古書들은 모두 古人의 問答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命名한 것이다.

둘째, 책속에 某人의 言行이 많이 記述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름을 얻는 경우: 이러한 책은 前條와 비슷한 점이 있으며, 또한 戰國·西漢時代에 가장 많았다. 孝經이란 책만 하더라도 비단 孔門의 著作이 아닐뿐 아니라 또한 先秦時代의 遺書도 아니며 바로 漢代의 儒學者가 左傳을 표절하고 여기에 自己의 意見을 더하여 混成시킨 것이다. 後人들은 이 책속에 曾子의 言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드디어 曾參의 所作으로 看做한 것이지만 實은 큰 錯誤이다. 이 책은 漢儒의 作品이라고 한다면 相當한 價値가 있지만 孔門의 作品으로 認定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빠짐이 너무나 많다.

또한 「管子」 및 「商君書」는 本來 戰國末年의 著作으로서 그 속에 管仲과 商鞅의 言行이 좀 많이 실려 있을 뿐이다. 더구나 管仲과 商鞅이 죽은 뒤의 事情에 關하여는 記載된 것이 또한 적지 않다. 萬一 戰國末年의 法家의 作品으로 認定한다면 그 價値가 至極히 높으며 좋은 參考資料가 상당히 많은 것이지만 萬一 이들을 管仲과 商鞅 自身の 著作이라고 認定한다면 當치도 않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책들은 作者가 그 姓名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大體로 一種의 類書로서 各項의 言行을 雜記한 것이다. 當初에는 決코 마음먹고 僞作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後人들이 書中에 某人의 言行이 많이 記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이를 附會하여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셋째, 主人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臆測으로 題目을 부친 경우: 許多한 價値있는 書籍들이 主人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有名人士의 것으로 假은 일이 있

다. 말하자면 山海經은 古代神話의 集成인데 가장 重要部分은 아마도 春秋·戰國시대 사람의 글이었고 가장 늦은 部分은 西漢·東漢사이에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 열두탕토한 말들이 많은 歷代의 사람들은 모두다 一部의 異書로서 認識했다. 史記가 비록 그 書名을 引用한 건 했으나 누구의 著作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오직 列子만은 일찍이 『大禹가 이를 가서 봤고 伯益이 이를 알고 이름짓고 夷堅이 이를 듣고 記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後人들은 太史公(史記의 著者 司馬遷)도 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책이 確實히 있었다고 믿었다. 거기다 列子에 또한 이러한 말이 있으므로 그만 太禹와 伯益의 著作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책속에 春秋·戰國의 地名이 많이 실렸으니 아무리 빨라도 春秋 이전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決코 三代(夏·商·周) 以前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難經」같은 것은 中國醫學界에서 가장 有名한 古書로서, 그중에는 81個의 醫學上的 難題와 그 答案이 실려 있다. 이는 마땅히 東漢末 三國시대 사람의 著作일 것으로 素問·靈樞와 더불어 이름을 날리는 것이다. 素問·靈樞는 時代가 좀 빠르니까 黃帝의 著作으로 假託되었지만 難經은 時代가 좀 늦어서 「秦越人」의 著作으로 꾸며졌다. 秦越人(譯註: 扁鵲, 名醫의 이름)은 戰國時代에 가장 有名했던 醫師로서 그가 아니고서는 이런 傑作이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難經」을 지은 사람이 意識的으로 僞書를 만들었을 리는 없는 것이다. 모두다 後人들이 主人의 이름을 밝힐 수 없으므로 함부로 扁鵲의 이름으로 꾸며 낸 것이다.

古書가 이와같은 뿐 아니라 近代 書籍 亦是 그러하다. 市井에 通行되는 「黃梨洲集」(譯註: 黃梨洲는 清代學者, 黃宗羲의 號)에 있는 鄭成功傳을 例로 들자면 作品으로서는 비록 나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黃氏가 손수 쓴 글이 아니다. 첫째는 文章의 筆致가 비슷하지 아니하고, 둘째는 滿清을 恭敬하고 그속에 있는 「聖朝」「大兵」등의 말은 黃氏의 身分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黃氏는 明室의 遺民으로서 滿洲人이 入關하자 限死코 節介를 꺾지 않았는데 어찌 滿清에 고분 고분 했을 리가 있겠는가? 大抵 當時에 어떤 사람이 鄭成功傳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某種의 關係 때문에 敢히 自己의 이름을 쓰지 못하였던 것인데 後人들은 黃氏의 「行朝錄」에 魯王과 唐王에 대한 記事가 자상하고 鄭成功은 滿洲를 排擊하는 中堅人物이니 鄭을 爲해 傳記를 썼다면 반드시 黃氏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으므로 드디어 이 傳記를 黃氏의 文集속에 넣어

이러한 큰 錯誤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作者는 僞作을 만들 생각이 없었으나 後人들이 제멋대로 臆測하여 他人의 이름을 함부로 부친 것이다. 古書가 이와같은 뿐 아니라 書畫詩詞 또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름없는 漢代의 碑名은 往往 蔡邕가 書한 것으로 誤認되고, 이름없는 唐代의 畫幅도 往往 吳道子의 作品으로 誤認되고, 古詩十九首를 後人들은 枚乘이 지은 것으로 많이 말하고, 菩薩蠻·憶秦娥 두首의 詞를 後人들은 李白의 作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다. 事情은 비록 같지 않으나 그 理致는 똑 같다. 우리들 研究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虛名에 誤導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本來는 主名이 있었으나, 不察로 妄題했을 경우: 越絕書는 江蘇省·浙江省地方에 대한 記錄이 자상하며 漢魏時人의 作品이다. 作者는 滑稽를 좋아해서 자기의 姓名을 公開로 밝히지는 않고 책의 끝머리에 故意로 四句의 隱語를 붙였다. 즉, 「去로써 姓을 삼되, 衣를 붙여야 이루어지고, 그 이름에는 米가 있는데 庚을 덮어 씌웠노라.」(以去爲姓, 得衣乃成; 厥名有米, 覆之以庚.) 우리들은 이 비유를 보고 「袁康」이란 두字를 明白히 알 수 있다. 그러니 作者의 姓은 袁이요, 이름은 康이란 것에 아무런 問題도 없다. 後人들은 이를 考究하지 못하고서 억지로 著名한 人士에다 갖다 붙였다. 書中에 吳越에 대한 記錄이 많이 있는데 孔子門下의 弟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子貢이 越國간 적이 있으므로 마침내 子貢의 著作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의 四庫全書도 그대로 子貢의 著作이라 하고 있다. 可笑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佛經중에 「牟子의 理惑論」은 中國人이 最初로 佛敎를 批評한 著書로서 모두 37章으로 되어 있으며, 至極히 價値있는 것이다. 自序에 「靈帝時에 亂離를 만나 交州로 避難을 가서 著作에 몰두했을 뿐 仕宦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했다. 時代·經驗·地方을 모두 明白히 말하고 있다. 隋書經籍志는 作者의 姓이 牟이기 때문에 姓이 牟인 사람은 다만 牟融만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므로 마침내 牟融의 作이라고 題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큰 錯誤였다. 唐書藝文志는 더욱 엉터리였으며 여기에 의하여 牟融의 官職을 생각해 내어 그에게 官銜을 덧붙여 「漢 太尉 牟融」의 作이라고 題하였다. 본래는 隱士였던 것이 갑자기 出世하여 達官으로 變했고, 본래는 安南에 있던 것이 또 갑자기 中原으로 뛰어 나왔으며 본래는 桓帝·靈帝時代였던 것이 갑자기 光武帝時代로 끌어 올렸으니 前後의 差는 二百年¹⁰⁾이나 된다. 책이 그릇되었음은 些少한 일이지만 後人들은 作者의

釋註 10) 桓帝·靈帝時代는 西紀147~188年이고, 光武帝時代는 西紀 25~57年이다. 이로서 보면 前後의 差는 二百年은 或 一百二·三十年의 錯誤가 아닐까. (震檀學會編, 韓國史[年表]. 서울, 乙酉文化社, 4292. p. 23. 35~39.)

姓名에 根據해서 佛敎에 대한 일을 推斷하고 佛敎의 中國傳來를 確實히 光武時代 以前 즉 牟融生存時代에 이미 대단히 發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되면 참으로 實를 입음이 적지 않다.

2. 部分的인 誤編이나 添加

이러한 作品은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類書를 專門書로 誤認하는 경우: 「管子」같은 것은 한 사람이 한 때에 만든 것이 아닌 雜誌體로서 若干篇의 法家말을 모은 책이며 누구의 著라고 標明하지 않고 있다. 그중에 「弟子職」·「內業」等篇은 全書의 體例에 맞지 않으며, 範圍·文體도 모두 드러들어 雜妙한 책인 것에 疑心할 바 없다. 萬一 하나의 類書로서 認定한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萬一 하나의 專門書로 認定한다면 틀린 일이다. 그속에 管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管子」라고 불리어 지는 것이지 實은 管仲의 作은 아닌 것이다.

둘째, 本文속에 註解가 同列로 섞여 있는 경우: 莊子 한 책만 하더라도 그 內篇은 莊周가 지은 것이지만 外篇은 後人이 「莊周의 書」를 註解한 것이다. 다만 抄書하는 사람들이 內篇을 抄하고 나서 또 註解도 아울러 抄하고는 「莊子」라고 通稱한 것이다. 그러나 內篇과 外篇은 內容·文體가 모두 같지 아니함은 얼른 보아도 쉬이 알 수 있다. 決코 한사람의 손에 依하여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內篇을 本文으로 한다면 外篇·雜篇은 반드시 註解가 되는 것이고, 外篇·雜篇을 註解가 아니라고 한다면 곧 外篇·雜篇은 반드시 後人의 僞作이 된다. 要컨대 莊周가 지은 것은 아니다.

하나의 部속에도 註解를 本文에 붙여 넣은 것이 있고, 하나의 篇속에도 역시 註解를 本文에 붙여 넣은 것이 있다. 古代에는 竹簡을 使用했는데 本文도 刀刻 或은 漆書했으며, 註解 역시 刀刻 或은 漆書했기 때문에 區別해 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禮記 王制篇의 맨 끝 『恒山으로부터 南河에 이르기까지는 千里가 좀 못되고 南河로부터 江에 이르기까지는 千里가 좀 못되고……』이라는 말이 있고 그 아래에는 또 『옛적에는 周尺 八尺을 一步로 삼았으며, 只今은 周尺 六尺 四寸을 一步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이 두 段은 모두 本文과 아무런 關係가 없으며 아마 註解일 것이거나 或은 後人이 周禮를 읽을 때 이 句절을 읽으면서 약간의 考證을 해 보고 마음대로 몇 字 적어 놓은 것이리라. 그래서 本文과 連結이 되지 않는 것이다.

讀者가 책의 空白에 다른 事項을 몇 줄 적어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本來 조금도 맞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後人들은 이것을 보고 原本으로 誤認하기도 한다. 論語의 季氏章 맨 끝段에 『諸侯의 妻

는 君(諸侯)이 부를 때에는 「夫人」이라 하고, 夫人이 스스로를 부를 때에는 「小童」이라 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를 때에는 「君夫人」이라고 하며, 딴 나라의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寡小君」이라 하고, 딴 나라의 사람이 부를 때에는 또한 「君夫人」이라 한다』라는 句節이 있는바 이 말은 조금도 意義가 없는 것이며 孔子가 이와 같이 말 할리는 없다. 또 微子章 끝 段에는 『周나라(成王때)에는 어진 선비 여덟이 있었으니 伯達·伯适·仲突·仲忽·叔夜·叔夏·季隨·季騶들이 다』라는 句節이 있는바 이것 또한 조금도 뜻이 없는 것이며 孔子의 말투와 같지 않다. 論語의 앞 부분에는 相關없는 말이 적은 편이나 뒷 부분에는 상관없는 말들이 참으로 많다. 前人들은 神奇與妙한 뜻을 지녔을 것이라고들 생각했으나 實은 後人들이 마음내키는 대로 적어 놓은 備忘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셋째, 獻書할때 篇幅을 늘리는 경우: 앞에서 歷代帝王이 獻書의 길을 넓혔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假書를 만들어 賞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또한 賞의 輕重은 卷數의 多寡를 基準으로 삼았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他書의 篇幅을 갈라서 數를 채워 賞을 많이 받으려 하였다. 周·秦의 諸子書에는 같은 文章이 왕왕 여기 저기 보인다. 例컨대, 韓非子의 첫 一篇은 戰國策속의 한篇과 같은데, 이는 韓非子를 받치는 사람이 戰國策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면 戰國策을 받치는 사람이 韓非子를 표절한 것이리라. 이러한 作品들은 秦·漢 사이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管子의 「弟子職」 「內業」 두편은 全書의 體例와 같지 않다. 大體는 獻書하는 사람이 投機하여 賞金을 받으려고, 마음대로 竄入한 것이리라.

넷째, 後人이 續作하는 경우: 後人들이 前人들의 책을 續作하는 것은 本來 僞書를 만들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原作과 續作이 混合되던 許多한 破綻을 일으킨다. 가장 顯著한 例로는 史記이다. 司馬遷이 지은 史記는 모두 130篇인데 現存하는 책은 아마도 거의 半이 太史公(司馬遷)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중에는 司馬遷이 죽은 뒤 十몇년 내지 백년위의 事項이 많이 收錄되어 있다. 다만 이것은 續作한 사람이 가짜를 만들 생각이 있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실지로 續作할 必要를 느꼈던 까닭이다. 史通 正史篇에는 「史記의 記錄은 漢武帝의 太初(B..C.104~101)까지이며, 그 以後는 記錄되지 않고 있다. 그後 劉向과 그 아들 歆 및 여러 好事家들——馮商·衛衡·楊雄·史岑·梁審·肆仁·晉馮·段肅·金丹·馮衍·韋融·蕭奮·劉恂 등이 뒤를 이어 續撰하여 哀帝·平帝時代(B.C. 6~A.D.5)까지 이르렀는데 오히려 史記라고 이름 붙였더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褚少孫·班彪·班固들은 아직 그속에 들지 않았

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漢代에 史記를 續作한 사람은 무려 18名이나 되니 史記란 책이 破綻이 百出하는 것도 피이치 않은 일이다. 다만 그 속에 「褚少孫」이 續作한 곳에는 『褚先生이 가로되……』라는 몇字로 밝히고 있으므로 그나마 識別이 可能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의 續作은 대부분 알아 낼 道理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司馬遷이 80. 90乃至는 120歲까지 살았다고 하여 後人들을 彷徨·混迷케 하고 있다.

다섯째, 編輯하는 사람이 無識하게 분량 많은 것을 貪하는 경우: 이러한 事情은 古代에도 있었으나 近代에 더욱 甚하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李太白集」·「蘇東坡集」은 모두 本人이 定本을 쓴 것이 아니고 死後에 弟子들이 연달아 엮은 것이다. 編者는 多量 第一主義를 채택했다. 마치 시장에서 채소를 살때 바구니에 많이 집어 넣을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眼識이 모자라 眞假를 識別하는데는 不足하였던 탓이다. 이로 말미암아 許多한 他人의 作品들이 이틈을 타

서 물어 들어 온 것이다. 이것은 意識的으로 僞書를 만들려 했다고 編者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의 本心은 다만 한 조각의 종이나 하나의 글자도 모두 貴重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미 眞假를 뒤섞은 나쁜 結果로써 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意識的으로 僞作하는 경우: 그 動機는 참으로 나쁜 것으로 眞僞를 辨別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無意識的으로 僞造하는 경우, 비록 動機만은 나쁘지 않았으나 또한 마땅히 考證해야 한다. 참다운 知識을 求하기 爲해 또 徹底한 理解를 얻기 爲해 古書에 대하여 이러한 態度를 마땅히 取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年代의 錯亂과 思潮의 混雜, 그리고 是非의 顛倒로 學界에 害를 끼칠기 實로 크며 그 또한 研究의 結論이 萬一 虛構를 기틀로 삼으면, 튼튼치 못하여 他人의 論駁감이 되기 쉽다. 以上 僞書의 種類, 作僞의 來歷, 그리고 年代錯亂의 原因을 簡單히 說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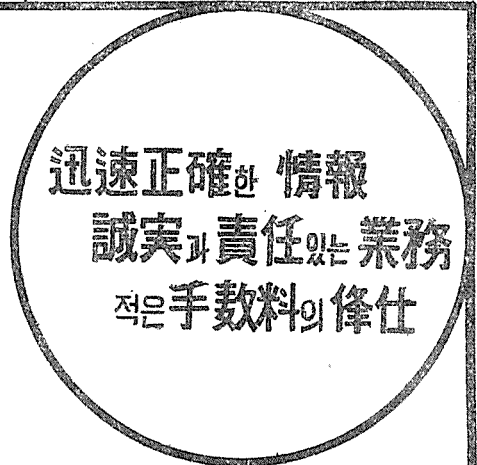
(次號 繼續)

1968年度

海外學術雜誌 豫約案内

1. 海外學術雜誌·新聞
2. 雜誌 價目
3. 海外學術書籍
4. 마이크로 필름 및 機材

● 購讀節次에 對하여 問議하여 주시면 案内書를 보내 드립니다.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쿠폰代行機關
 株式會社 팬 아메리칸 서비스
 서울特別市 鍾路 3街 13의5(裕林빌딩 3層)
 電話 (74)3783 (73)4262 國際私書函 1647號